

인문학 연구소 소식

2025년 가을

Institute of Humanities Newsletter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5년 9월

전 화 051-510-1669

발행인 이호석

편집인 서민정

디자인/제작 만수출판사

전 화 051-513-4042

2025년
가을호

Contents

01 | 여는 말

02 | 연구소 활동

03 | 책 소개

04 | 논문 소개

01 | 여는 말

어느덧 2025년의 가을이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폭염과 집중호우,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급속히 확산되는 기술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질문의 밀도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계절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와 감각, 지식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우리는 인문학의 방식으로 다시 묻고, 되짚어야 할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기술과 자본, 국가의 언어가 압도하는 시기일수록, 말과 기억, 사유의 가능성을 지키는 일은 더욱 절실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이 '정보'를 넘어서 '해석'과 '의미'의 층위까지 자동화하려는 오늘날, 인문학은 느리고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말해도 되는 권리,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상상력을 질문하는 학문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계절의 전환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인문학의 사회적 실천과 학문적 기획을 지속해왔습니다. 연구소가 주관하는 "인문도시 창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여름에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 인문강좌를 통해 생활공간 속 인문학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실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두 번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희곡읽기의 즐거움"(배삼식 교수), "사랑과 혁명 그리고 공동체"(김탁환 작가)의 주제로 구성된 이번 특강은, 문학과 사회, 삶과 언어의 관계를 시민과 함께 사유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접속된 인문학적 해석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역시 다양한 강의 주제와 참여자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과 시민을 연결하면서 '마을형 인문교육'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해 온 "골목인문학"을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정규 강좌가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창원중앙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부산대학교 사학과 이종봉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고, 이어서 김경복(경남대), 양영란(부산대), 이근열(부산대) 교수님의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술지 『코기토』도 발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가을 현재, 『코기토』 제107호 원고 모집이 마감되었으며, 10월 말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기토』는 단지 논문 발표의 장을 넘어, 연구자들이 시대를 구성하는 개념을 언어화하고, 동료 연구자들과의 지적 대화를 이어가는 공론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이번 호의 발간 또한 인문학연구소 활동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한편 연구소는 다가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20회 인문주간 행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문주간은 지역의 독립서점·공공기관·시민사회와 함께 '다시, 잇다: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연, 워크숍, 전시, 산책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문주간은 단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인문학이 공공적 감각과 일상적 접점을 회복하는 계절적 실천이기에 연구소 역시 이 기간을 가장 중요한 공공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의 가을,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지역과 세계, 학문과 실천의 경계를 오가며, 인문학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사유의 형식이자 공동체적 대화의 언어임을 실감하는 여러 기획들을 수행해왔습니다. 거대한 기술 전환기 속에서 인문학은 빠르게 소비되는 지식의 흐름에 저항하는 느린 질문이며, 말해도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윤리적 기준을 구성해 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인문학연구소는 이 느린 질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연구자, 시민,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연구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사유의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분들이며, 인문학의 사회적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인문주간과 함께, 더욱 풍성한 가을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서민정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부소장

1.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 '마실 인문학'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에서는 2025년 하반기 '마실 인문학' 특강을 기획하였다. 이번 특강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시민들이 인문학을 매개로 지역과 공동체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인문적 사유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8월 13일(수)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희곡작가인 배삼식 작가가 '배삼식 희곡읽기의 즐거움'을 주제로 강연을 선보였고, 9월 13일(토)에는 소설가이자 생태책방 '들녘의 마음 책방지기'인 김탁한 작가가 '사랑과 혁명 그리고 공동체'를 주제로 한 인문학 대화를 진행하였다. 두 강연 모두 창원시 사람동에 위치한 지혜마실협동조합에서 열렸고, 지역 주민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이었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를 잇는 든든한 인문학의 터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2. 2025 상반기 <희망의 인문학>

2025년 상반기 <희망의 인문학> 강좌가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감정의 인문학-감정은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소외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인문학 강좌로 기획한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동구쪽방상담소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 기간: 7/4 (금) ~ 7/25 (금) 오전 10시~
 - 장소: 동구쪽방상담소 3층 교육실
 - 주최: 동구쪽방상담소,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1강 '나의 감정은 '누구의' 감정인가? - 응구기의 '말회' (7/4) 금
강사: 이효석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2강 감정의 전달과 새로운 글쓰기 (7/11) 금
강사: 이소영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3강 '오셀로' - 질투는 나의 힘 (7/18) 금
강사: 김영주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4강 감정의 표현과 언어 (7/25) 금
강사: 서민정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3. '창원인문영상크루 셔터 2기' 출범

지난 1기에 이어 9월에 출범한 '창원인문영상크루 셔터 2기'는 10번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감독들의 지도를 받고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된다. 지난번 다큐멘터리는 청년만의 인문학적 시선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이번 '웹드라마' 미션은 청년이 보다 더 주체적으로 시나리오부터 작성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교 신입생부터 직장인, 영상업 종사자까지 어우러져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고 계발하는 기회가 되었다. 셔터 2기 활동의 제작물은 11월 1일 인문주간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인문도시창원청년영상크루 셔터 2기

창원 내 청년(15-29)들이 지역 감독과 함께 웹드라마를 만드는 프로젝트

- 촬영장비 제공
- 수료증 지급
- 우수팀 상금 지급

장소/시간
- 주일 오후 2-4시
- 창원 내 교육장 (창원시청자미디어센터, 스타타워, 도시재생생물센터)

지원방법
9/18(목)까지 구글폼 작성 (제안 또는 7인 이하 팀)

강의진

기획안 제출: 9/20(토) ~ 9/22(월) | 9/23(화) ~ 9/25(목) | 9/26(금) ~ 9/28(일) | 9/29(월) ~ 10/1(수) | 10/2(목) ~ 10/4(토) | 10/5(일) ~ 10/7(화) | 10/8(수) ~ 10/10(금) | 10/11(토) ~ 10/13(일) | 10/14(월) ~ 10/16(수) | 10/17(목) ~ 10/19(토) | 10/20(일) ~ 10/22(화) | 10/23(수) ~ 10/25(금) | 10/26(토) ~ 10/28(일) | 10/29(월) ~ 10/31(수)

생태와 통합의 가치를 꿈꿔요



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함께하는 '창원 열린 인문학'

인문학연구소 인문도시사업단에서는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창원 중앙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함께하는 창원 열린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인문도시사업단은 "상아탑 속 인문학을 시민 속으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취지로 지역의 인문학적 자산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인문학을 일상에서 접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인문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정규강좌 역시 이러한 사업의 취지 아래 기획되었다.

인문도시창원: 생태와 통합의 가치를 꿈꿔요

2025 하반기 창원에서 만나는 인문학 강의

장소: 창원중앙도서관 4층 다목적실

시간: 매월 첫번째 목요일 14시-16시

사전예약: - 창원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접수 → 모집신청접수

날짜	강연자	주제
1 9/4(목)	이종복(부산대)	고려시대 민의 수명과 죽음
2 10/2(목)	김경복(전남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계
3 11/6(목)	이근영(부산대)	언어와 문화
4 12/4(목)	황영민(부산대)	무엇이 시선 :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레니

문의: 051-510-166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03 | 책 소개

도서명 :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

저자 : 자크 데리다

역자 : 문성원(부산대학교 철학과) · 최성희(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출판사 : 아카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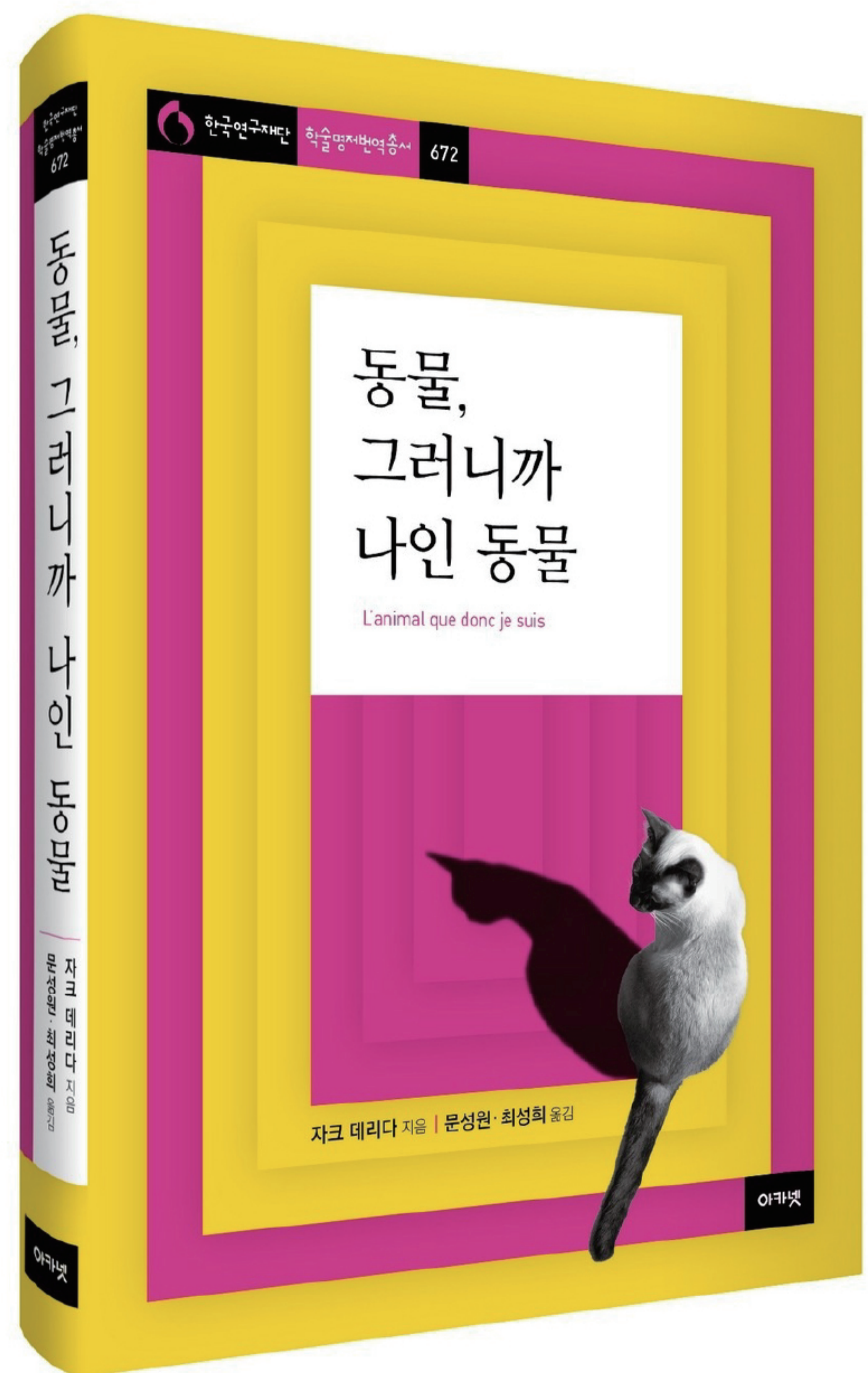
출판일자 : 2025년 9월 25일

20세기 말부터 서구권에서 동물에 대해 새로운 태도로 접근하는 이론이 늘고 21세기가 되자 동물과 동물성을 다루는 논문들이 인문학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인문학에서 동물이 진지한 사유의 대상으로 떠올랐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문학과 철학에서 동물과 동물성을 다루는 논문들이 거의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는 글이 바로 데리다의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이다. 이번에 나온 이 책은 그 글을 시작으로 데리다가 1997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스리지(Cerisy)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한 일련의 강연들을 엮은 것이다. 이 강연집이 번역되어 나오므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데리다의 동물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훑어볼 수 있게 되었다.

데리다는 이 강연의 서두를 자기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데리다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유럽 문화에서 '문제적' 동물로 여겨져 온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데리다는 유사 이래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끈질기게 추적해 들어간다. 먼저 그가 주목하는 것은 동물의 시선이다. 아니, 인간의 동물에 대한 시선과 동물의 인간에 대한 시선의 방향에 대해 주목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터이다. 데리다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시선은 항상 '인간→동물'의 방향이었지, 그 반대가 아니었음을 역설한다.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 또는 이론가들이 "동물을 보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성찰했지만" 그들은 한번도 '동물에 의해 보여진다고 여기지 않았던 듯이' 동물들을 대해왔다는 것이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시선과 인간을 향한 동물의 시선이 서로 얽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시선이 일방적으로 배제되어 왔다는 것, 데리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거꾸 지적한다.

이처럼 고양이의 시선을 중심으로 펼쳐가는 그의 동물에 대한 사유는 동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태도와 관행들, 그리고 사례들로 확산되어 간다. 웃, 이성, 언어, 역사, 웃음, 애도, 매장 등 인간만이 가진 문화로 받아들여 온 것들에서, 데카르트에서부터 하이데거, 라캉, 레비나스 등 근대 이후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내놓은 동물론의 오류에서,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비롯한 여러 문학 작품들에서, 나아가 성경의 창세기와 같은 서양 문화의 뿌리에 해당하는 문헌들에서, 데리다는 서양 문화의 인간중심주의를 집요하게 파헤쳐 나간다. 그런 와중에 그는 인간과 구별하여 일반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동물이란 하나의 말(word)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점을 함의하는 '동물-말'(animot)이라는 흥미로운 용어를 제시한다. 이 말은 '동물들을

뜻하는 프랑스어(animaux)와 발음이 같아서, 동물은 단수로 뭉뚱그려질 수 없는 여럿이며 그 각각이 나름의 독특성을 지닌 존재들임을 환기해 준다. 동물에 대한 기존의 태도와 달리, 데리다는 부끄러움이라는 정념의 수동성으로 '자기 앞의' 동물 앞에 선다. 그는 자기 앞의 고양이를 귀여운 새끼 고양이이거나 품종묘라거나 길고양이라거나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 고양이로서 대한다. 그 고양이의 눈빛을 받으며, 그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수동성 또는 겸손함에 데리다의 동물론이 지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의가 있다.



논문 제목 : 도쿄재판에 나타난 일본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의 전쟁
범죄와 역사 인식 — 고코 기요시(郷古潔)를 중심으로

저 자 : 강경자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게재지 : 『일본연구』 제62호(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게재일 : 2025년 2월 20일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일본 정부와 기업은 전쟁 관련 문서를 대거 소각하거나 은폐하였다. 그 결과 전범 기업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도쿄재판 당시 국제검찰국(IPS)이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을 심문하며 작성한 조서는, 국가·군부·기업 간 협력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적인 1차 사료로 평가된다.

본 논문은 이 심문조서를 중심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영자 고코 기요시(郷古潔)에 주목하였다. 그는 제국협력회, 대정익찬회, 군수성 고문 등의 직책을 통해 정부와 군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본 경제를 전쟁 수행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논문의 주요 분석 내용

첫째, 본 연구는 도쿄재판에서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방침을 검토하였다. 초기 연합국은 SWNCC의 150시리즈 문서와 SCAPIN-243을 통해, 전쟁경제를 지탱한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1947년 이후 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의 대일정책이 '전범 처벌'에서 '경제 재건'으로 전환되면서, 1948년 12월 고코를 포함한 모든 A급 전범 용의자가 석방되었다. 이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전범 기업들이 전후 책임으로부터 사실상 면책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고코 기요시의 USSBS(미전략폭격조사단) 및 국제검찰국 심문조서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심문 과정에서 그는 도조 내각과의 연계 및 기업의 전쟁 수행 책임을 부인하며 자신을 '국책에 따른 협력자'로 포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경력과 자료를 교차 검토한 결과, 1940년부터 도조와 경제 개혁을 논의하였고, 1943년에는 내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군수성 설립을 주도했으며, 군 수뇌부 및 관료들과 직접 협력하여 전시 경제정책 입안에 깊숙이 관여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본 논문은 고코의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 그의 진술은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전형적인 왜곡을 보여주었다. 고코는 만주 점령과 개발을 '만주의 근대화에 기여한 행위'로 서술하고, 중일전쟁을 '우발적 모멘텀'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만주의 개발 이익은 일본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현지 주민들은 노동력 착취와 식민적 억압을 겪었다. 중일전쟁 또한 일본 군부가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침략전쟁이었다. 나아가 그는 대동아공영권의 침략적 성격을 '남양제도와 일본 간의 무역 촉진'으로 축소하여, 침략과 수탈의 본질을 은폐하였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침략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와 재계의 공통된 논리를 반영한다.

학문적 의의

본 연구는 도쿄재판의 1차 사료—특히 국제검찰국 심문조서—를 중심으로 전범 기업인의 전쟁범죄 및 역사 인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고코 기요시를 사례로 삼아, 기업인이 단순히 '국가에 협력한 경제인'이 아니라 전쟁정책의 기획자이자 행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 연구는 전범 기업인의 책임과 역사 인식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전시경제 연구의 기업사적 공백을 메우고, 전후 일본의 책임 인식과 기업 윤리에 대한 재평가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논문 제목 :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무성 치간 마찰음의
경음화현상 연구

저 자 : 최영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게재지 : 『언어학연구』 제74호(한국중원언어학회)

게재일 : 2025년 1월 31일

이 연구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다년간의 학습 후에도 영어 무성 치간 마찰음(voiceless interdental fricative) /θ/을 경음(tense sound)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착안하여, 그 원인을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의 분석을 통하여 유표적 제약(Marked Constraint)과 자질보존성의 제약(Feature Preservation Constraint)의 서열로 설명한 것이다. /θ/는 음향신호가 낮은 편에 속하는 비조찰음(non-strident)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서 인지와 발음의 어려움과 오류 및 세계 여러 언어의 /θ/ 대체음을 관찰하는 연구가 많다. 음소는 발화할 때 음운 환경에 따라 지각적 유사성(perceptual similarity)을 가지는 이음으로 실현되고, L2학습자들이 올바른 이음실현이 어려운 경우, 화자의 모국어 음소체계에서 유사한 자질을 지닌 대체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이 영어를 습득해가는 과정에서 /θ/를 경음 [t', s']로 실현하는 경우가 많다. /θ/가 결핍된 대부분의 다른 언어들에서는 보편적으로 [t]나 [s]를 대체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인 학습자들의 경음화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θ/ 다른 대체음 [th, t, t', s, s'] 중에서 경음 [t', s']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고, 음절초는 [t'], 음절말은 [s']로 각각 다른 경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차용어 표기와 영어 발화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θ/와 경음사이에 지각적 유사성을 관찰한 결과, 두 음은 비기식성[-aspirated]과 비조찰성[-strident]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즉,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θ/ 경음화는 영어발화에서 상위서열에 적용되는 자질 보존성 제약 PRES[+aspirated]에 의하여 /θ/의 비기식성을 보존하고,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치음을 회피하는 유표적 제약 *[dental]이 상위서열에서 작용한 현상이다.

또한 음절초에서는 경음 폐쇄음 [t']으로, 음절말에서는 경음 마찰음 [s']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음절초의 자질보존성이 음절말보다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PRES(Initial[±Str]>Final[±Str])를 준수한 결과이다. PRES(Initial[±Str]>Final[±Str])는 음절초 자질이 그 보존성이 강하여 지각적 유사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대체음 [t']를 사용하는 반면, 음절말에서는 자질보존성이 덜 엄격하여 마찰음이 지닌 보편적 자질 [+strident]를 허용하여 [s']가 선택되게 하는 결정적 제약이다.

PRES(Initial[±Str]>Final[±Str])제약은 학습자들이 음절초와 음절말에 다른 대체음을 사용하는 것이 음절 위치에 따라 제약 서열을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음절 위치에 따라 별도로 제약을 설정할 필요 없이 단일한 제약 집합으로 음절초 대체음과 음절말 대체음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음절초 대체음 [t']의 분석

#θ_ → t'	*[dental]	PRES[+aspirated]	PRES(Initial[±Str]>Final[±Str])	PRES(manner)
i. θ	*!			
ii. t ^h		*		*
iii. t		*		*
iv. t'				*
v. s		*	*	
vi. s'			*	

자질 보존성 제약을 이용한 OT분석은 한국인 학습자의 발화에서 관찰되는 다른 발음변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교육현장의 참고자료가 되어 영어 /θ/ 경음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고, 학습자가 경음화를 스스로 인지하게 하여 교정의 기회를 갖게 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